

# 광주FC '최만희 대표·김호영 감독 선임' 쇄신 나선다

### 축구 전문 경영인 출신 대표이사 상근직 전환 새 지도부 구축 김 감독, 한국·중국 리그 지도자로 활약...28일부터 훈련 지휘

광주FC의 최만희(64) '초대 감독'이 대표이사로서 팀 쇄신에 앞장서게 된다. 2021시즌 광주 지휘봉은 김호영(51) 전 FC 서울 감독대행이 잡는다. 광주시는 22일 광주전용구장 1층 인터뷰룸에서 최근 시 감사에서 드러난 프로축구단 광주FC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혁신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상근직 대표이사의 단장 겸임이다. 시민구단인 광주FC는 광주시장을 구단주로 해 대표이사, 단장체제로 사무국을 운영했다. 하지만 최수영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한 내부 갈등 속 비리 등이 불거지면서 몸살을 앓았다. 광주시는 축구 전문 경영인 출신의 대표이사를 상근직으로 해 전임대표 체제로 광주FC의 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또 대표이사가 단장을 겸하도록 했다. 혁신방안을 발표한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

장은 "앞서 선수 출신 단장을 뒀던 이유는 대표이사가 비상근이었기 때문이다. 조직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대표이사를 상근으로 돌리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강화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해 조직을 쇄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무국이 지원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등 선수단을 중심으로 광주FC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초대 감독'으로 광주FC를 지휘했던 최만희 전 감독이 전임 대표이사로 복귀한다. 광주 출신인 최만희 선임대표 내정자는 전남기계공고와 중앙대에서 선수로 뛰었고 1986년 대한민국 U-16 대표팀 코치, 1991년 U-20 대표팀 남북 단일팀 코치에 이어 1991년 울산 현대 2군 코치로 K리그에 입성했다.



최만희 대표이사



김호영 감독

이후 대한민국 국가대표 코치, 전북현대 감독 등을 역임했고 2011년 광주FC의 초대 감독으로 고향팀에 돌아왔다. 2013년부터는 파주 축구국가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 센터장, 대한축구협회 대외 협력기획단 단장을 거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 아이파크

크 대표이사를 맡아 행정과 경영 경험을 쌓았다. 그는 국내 축구선수 출신 '박사학위 1호' 이력도 자랑한다. 최 내정자는 현재 광주축구협회장 당선자 신분이기도 하다. 아마와 프로까지 한데 아울러 광주 축구 기틀을 다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FC서울행을 선택한 박진섭 감독과의 계약 해지로 공석이 된 사령탑 자리에는 김호영 전 서울 감독대행이 선임됐다. 광주 금호고 출신인 김 선임 감독은 동국대를 거쳐 프로에 데뷔했으며, 일화천마(1991-1995)와 전북현대(1996-1999)에서 활약했다. 2002년 연경별 대표팀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06년 서울로 자리를 옮겨 이장수 감독과 세늘 구네슈 감독을 보필했다. 당시 서울의 리그컵 우승과 기성용, 이정용 등 신예 선수들의 1군 발탁에 일조하며 역량을 인정받았다.

또 2010년 이장수 감독과 함께 중국 프로 2부리그 광저우 헝다로 자리를 옮긴 김 감독은 부임 첫 해 리그 우승과 함께 1부리그 승격을 이끌었고, 다음 시즌엔 1부리그 우승컵까지 들어 올렸다. 이후 2013시즌 중반 강원FC 김학범 감독의 후임으로 국내리그로 복귀했다. 2015년 동국대를 거쳐 올 시즌 중반 서울 수석코치로 돌아온 김 감독은 한 달여 만에 감독대행을 맡았다. 김 선임 감독은 22일 선수단과 상견례를 가진 뒤 28일부터 훈련을 지휘하며 본격적인 2021시즌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혁신안에는 ▲선수단 중심의 운영체계 확립 ▲재정의 투명성 확립 ▲선수단·사무국·광주시 협력체계 구축 ▲시민참여 확대·시민친화적 구단 운영 등도 담겼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사무국의 조직 개편과 경찰 수사를 받는 직원들의 직무배치 등 문제는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가 부담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볼 다툼 승자는? 2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웨스트햄의 파블로 포르날스(왼쪽 두 번째)가 첼시 선수들과 공중볼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 첼시, 2연패 탈출 토트넘 밀어내고 5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첼시가 2연패에서 탈출하며 5위로 올라서자 시즌 첫 연패를 경험한 토트넘은 6위로 내려앉았다. 첼시는 22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웨스트햄과 2020-2021 EPL 14라운드 홈경기에서 데이비드 에이버리의 멀티골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승리했다. 첼시는 전반 10분 코너킥 상황에서 치아구 시우바의 헤딩 결승골로 일찌감치 득점에 성공하며 전반을 1-0으로 마쳤다. 후반에도 웨스트햄을 압박한 첼시는 후반 33분 티모 베르너가 왼쪽 측면에서 투입한 패스를 에이버리에게 골지역 정면으로 쇄도하며 오른발슛으로 볼의 방향을 바꿔 추가골을 터뜨렸다. 최근 2연패의 수모를 당했던 첼시는 연패 탈출에 성공하면서 승점 25(골득실+15)를 기록, 토트넘(승점 25·골득실+11)과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골득실에서 앞서며 5위로 올라섰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개막전에서 에버턴에 0-1로 패하며 어렵게 출발했지만 이후 '순세이셔널' 손흥민의 맹활약을 앞세워 2-12라운드까지 11경기 무패(7승 4무)의 고공비행을 이어가며 1위 자리까지 찍었다. 하지만 토트넘은 14라운드에서 0-2로 완패하며 시즌 첫 연패의 고배를 마셨고, 연패의 후유증에 순위도 5위로 곤두박질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첼시가 14라운드에서 연패 탈출에 성공하자 토트넘은 5위 자리까지 내주고 6위로 물러서야만 했다. /연합뉴스

## 류현진, MLB 최고 좌완투수

아시아 첫 '워런 스팅상' 선정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최고의 좌완투수에게 주는 '워런 스팅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은 물론 아시아 최초다. 워런 스팅상 선정위원회는 22일(한국시간) "류현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고 밝혔다. 워런 스팅상은 메이저리그 전설적인 왼손 투수 워런 스팅을 기리고자 제정한 상이다. 스팅은 MLB 통산 750경기 363승 245패 평균자책점 3.09를 기록한 최고의 좌완 투수 중 한 명이다. 역대 좌완 투수 최다승 기록을 세우고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됐다. 워런 스팅상 선정위원회는 스팅의 업적을 기리고자 1999년부터 수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21명의 수상자가 나왔다. 랜디 존슨(은퇴)과 클레이턴 커크(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가장 많은 4차례씩 수상했다. 류현진은 2019시즌 MLB 전체 평균자책점 1위를 차지해 수상 가능성을 높였지만, 패트릭 코빈(워싱턴 내셔널스)에게 아깝게 밀렸다. 그러나 올 시즌 다시 한번 맹활약을 펼치며 워런 스팅상을 거머쥐었다. 류현진은 올 시즌 12경기에서 5승 2패 평균자



책점 2.69, 탈삼진 72개를 기록했다. 규정이닝을 채운 좌완 투수 중 다승 3위, 평균자책점 2위, 최다 탈삼진 2위다. 그는 토론토의 포스트시즌 진출을 이끌며 MLB 최고 투수에게 주는 사이영상 아메리칸리그 부문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 손흥민 'EPL 올해의 팀'

마네 제치고 왼쪽 공격수 차지 손흥민(28·토트넘)이 영국 매체 스카이스포츠가 선정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올해의 팀'에 포함됐다. 스카이스포츠는 22일(한국시간) 축구 해설가로 활동하는 게리 네빌과 제이미 캐러거가 뽑은 'EPL 올해의 팀'을 공개했는데, 손흥민은 4-3-3 포메이션의 왼쪽 측면 공격수로 자리했다. 손흥민은 사디오 마네(리버풀)와 라힘 스티어링(맨체스터 시티) 등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네빌은 "손흥민과 마네는 분명 월드클래스다. FC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등 세계 모든 클럽이 이 둘을 원할 것"이라며 "다만 득점과 어시스트를 놓고 봤을 때 손흥민이 리버풀보다 좋지 않은 팀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EPL 30경기에 출전해 11골 11도움을 올렸고, 올 시즌에는 14경기에서 11골 4도움을 기록 중이다. 도미니크 칼버트(에버턴), 제이미 바디(레스터 시티)와 함께 리그 득점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는 해리 케인, 현재 리그 득점 선두(13골)에 오른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도 공격수 부문에 포함됐다. 미드필더로는 케빈 더브라워너(맨체스터 시티), 조던 헨더슨(리버풀), 브루누 페르난데스(맨



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뽑혔다. 수비수에는 트렌트 알렉산더-아널드, 피르질 판 데이크, 앤드루 로버트슨(이상 리버풀), 코너 코디(울버햄프턴)가 이름을 올렸고, 골키퍼는 알리송(리버풀)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

## '초롱이' 이영표 강원FC 새 대표에

2002년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이영표(43)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강원도민 프로축구단인 강원FC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강원FC는 22일 오전 강원체육회관 대회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이영표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선임 대표는 "많이 부족하지만 35년간의 축구 경험을 최대한 살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흥천 출신의 이 대표는 안양공고와 건국대를 거쳐 2000년 안양 LG 소속으로 K리그에 입단했다. 이후 1999년 6월 12일 코리아컵 멕시코전에서 A매치에 데뷔한 그는 2000년, 2004년, 2011년 아시아컵은 물론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06년 독일 월드컵,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까지 대표팀 부동의 왼쪽 풀백으로 활약했다. A매치 출전 횟수는 홍명보(136경기), 이운재(131경기), 차범근(130경기)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연합뉴스

